

예비 고3, 겨울방학 성적향상 기회 살리자

탐구과목 개념 익혀 3월 학력평가 실력 점검 영어 약할수록 어휘 중심 문법·독해 다져야



겨울방학은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입시와 학습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내년 대입을 앞둔 예비 고3이라면, 겨울방학 중 본격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시작해 수시와 정시 모두를 견인하는 학습 초석을 다져야 한다. 2023학년도 대입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예비 고3이 실천하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겨울방학 입시·학습 전략을 소개한다.

◇전형별 입시 전략 세우자

예비 고3은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 변경, 학교장추천전형 확대, 상위권 대학의 모집권 연쇄 이동, 약대 학부 선발 실시 등 변화가 많았던 전년도 입시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전형별 입시결과 및 지원 양상 등을 적극 참고하자. 2023년 입시에서도 정시를 주목해야한다.

2023학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6,067명 축소된 6만9,911명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

다. 이는 전국 대학 기준일 뿐,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49명 늘어난 4만346명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해 2023학년도에도 정시 확대의 흐름을 잇는다. 한편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도 교과평가를 적용한다.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자신의 주력 전형을 고민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이 교과·활동·수능·논술 등으로 구분되는 각 전형요소별 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컨대 수능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학생이라면 정시를 주력으로 삼되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는 논술전형 위주로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교내 활동을 전개했으나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아쉬운 학생이라면 학업역량보다 탐구역량을 더 높이 반영하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주력 전형을 미리 고민해 각 전형에 따른 시기별 실천 전략을 세운다면, 다가오는 3학년 수험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

◇수능 대비 학습 집중

수능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나머지 요소가 아무리 우수해도 결과는 불합격이다. 학기 중에는 학교생활 및 수시 준비 등으로 생각만큼 수능 공부에 시간을 쏟기 어려우므로, 겨울방학 동안 주요 과목 위주의 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겨울방학 동안 가장 공들여야 할 과목 중 하나는 탐구다. 학습에 앞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수능 탐구 과목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겨울방학 동안 한 과목만이라도 개념을 철저하게 익혀 3월 학력평가에서부터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2022학년도 수능은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상의 유불리였다. 실질적인 고득점 획득은 전체 문항 중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공통과목에 달려있다. 겨울방학 동안 수학 I, 수학 II 학습을 확실히 재정비해 기본적인 수능 수학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고난도 심화 문제풀이가 가능한 수준까지 학습 수준을 높이고, 중위권 이하

학생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하며 학습적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

국어 역시 수학과 마찬가지로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의 비중이 더 크다. 해마다 문학, 독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출에 자주 등장하는 문학 개념어 및 필수 고전 작품 정리를 방학 중 끝내고, 독서의 경우 매일 1~2개 이상 기출 지문을 풀고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실전 수능을 앞둔 만큼 방학 중 반드시 선택과목에 대한 고민 및 학습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이번 겨울방학을 노려 문법 전반에 대한 확실한 개념 이해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 화법과 작문에 비해 공부해야 할 양이 많지만, 학습량만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문제풀이에 드는 시간이 화법과 작문보다 적어 그만큼 공통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영어 절대평가 시행 이후 수험생들의 영어 학습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영어가 정시에서 지니는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2022학년도 수능만 하더라도 1등급 비율은 6.25%로,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

학기 중에는 국어와 수학, 탐구를 공부하기 바빠 영어에 많은 시간을 쏟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가 약한 학생일수록 방학 중 반드시 어휘를 중심으로 문법, 독해 스킬을 다져야 한다.

상위권 학생이라면 안정적인 1등급 확보를 위해 겨울방학부터 기출 및 심화 문제풀이를 꾸준히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이나라 기자

전남대-한국에너지공대, 교육·연구 협력

분야별 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전남대학교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교육과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정성택 전남대 총장과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은 최근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교무, 연구, 교육혁신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이르기까지 세밀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협력과 지원 사항을 협의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각 분야별 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교육 및 인력 교류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국제 교류사항 ▲기타 상호발전과 상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택 총장은 “세계적인 학문기관으로 성장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들어선 것은 축복”이라며 “전남

대와 연구·교육 역량을 교환하면서 시대가 요구하고 사회가 바라는 가치창출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윤의준 총장은 “첫 출발하는 대학인만큼 여러 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아 전남대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며 “한국에너지공대 또한 지역의 협력대학으로서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조선대 신입생 캠퍼스 투어, 메타버스로 즐긴다

본관·중앙도서관·미술대학 등 MZ세대 눈높이 맞춰 제작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이 2022학년도 수시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및 기초학문 지식을 미리 교육하는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메타버스(Metaverse·가상세계)로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대학교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메타버

스를 활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을 시작으로 5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애교심 고취,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경험을 선호하는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다.

가상공간에는 조선대학교 본관을 비롯해 중앙도서관, 미술대학, 광주이스포츠경기장 등 캠퍼스를 그대로 구현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해 학교



조선대는 올해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메타버스로 진행했다. /조선대 제공

를 둘러보며 미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나라 기자

지역 대학 교수학습 워크숍 광주대, 문화예술교육 소개

광주대학교는 최근 호남대, 동신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들과 함께하는 ‘지역 대학 간 교수학습 방법 성과공유’ 워크숍을 비대면 실시간 화상수업(Zoom)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박진영 광주대 교육혁신연구원은 특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역량과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관성 ▲광주대 교양 특성화 과목에 대한 이해와 운영 현황 ▲비교과 과목으로 확대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역확산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광주대 특강에 이어 호남대는 ‘메타버스 활용전략’을, 동신대는 ‘MZ세대와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 설계’ 등을 발표하며 다양한 내용을 공유했다.

박진영 교육혁신연구원은 “문화예술교육으로 대학생과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우리 시대 필요한 따뜻한 사람 중심의 인성과 역량을 키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호남대 외식조리과 인재육성 요람 입증

박성근씨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5번째 수상자 배출

호남대학교 외식조리학과가 국내 대학 단일학과 최초로 교육부가 선발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에 5번째 수상자를 배출하며 ‘최고의 인재육성 요람’임을 입증했다.

4일 호남대학교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고 권위의 시상제이다.

외식조리학과 동문 박성근씨(27·2021년 졸업)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조리 분야 각종 경연대회 입상 등 탁월한 성과를 발휘해 청년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외식조리학과는 지난 2009년 정남씨, 2012년 김형천씨, 2013년 박형수씨, 2016년 한국국제에 이어 다섯 번째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명품학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외식조리학과 김영균 학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 국내 최초로 은-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박성근씨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청년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픈라인 졸업작품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이론과 실습의 조화를 이룬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5명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를 배출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